

'삼한지 테마파크' 고대사 체험

국립중앙박물관 21~22일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고대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지난 21·22일 이를간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찾아가는 박물관-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라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관람객 4천여 명이 참여해 금동신발, 금동관 등 대표적인 고구려 유물을 들러봤고, 활쏘기, 고분벽화 탐본 등 고구려 역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양평석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담당자는 "삼한지 테마파크가



22일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린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고구려 문양을 스템프로 찍어보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배움을 기회로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온사마 보러 왔어요...너무 행복해요"

삼한지 테마파크, 日·中·홍콩 등 외국인 관광객 급증

"온사마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난 21일 10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삼한지 테마파크를 찾았다. 이들은 '온사마'(배용준)팬클럽 회원들로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태왕사신기'를 촬영한다는 내용을 알고,

배용준을 한발치라도 가까이서 보고 체취를 느끼기 위해 찾아온 것.

삼한지 테마파크에는 최근 들어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홍콩, 하와이 등 외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지난주 '한국 드라마 팬클럽' 회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50여 명의 하와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기도 했다. 이들은 세트장 안에 있는 기념품점에서 선물 수저세트와 열쇠고리, 셔츠와 달걀 등을 5만~10만원어치씩 대량구매 했다.

삼한지 테마파크의 나가영 가이드팀장은 "단체뿐만 아니라 3~5명씩 팀을 짓거나 혼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화순농협 '양곡·저온 저장창고' 준공

화순농협은 지난 20일 화순읍 계소리에서 '양곡창고 및 저온 저장창고'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에 준공된 창고는 대지면적 2천755평에 총 사업비 11억3천200만 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착공됐다.

300평 규모의 '양곡창고'는 정부가 정하는 특급 시설을 갖췄으며 40kg 조곡 3만6천포(1천440t)를 보관할 수 있다.

또 '저온 저장창고'는 40kg 조곡 1만포(400t) 규모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저온 저장을 통해 친환경 쌀의 품질 보존이 가능케 됐다.

이형권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 사회를 위해 밭로 뛰는 화순농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대용 장군 추모제 참배

나대용함 승조원 6년째

나주시와 지난 200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대용함(함장 이정모) 승조원들이 매년 4월 21일 문령면 소총사에서 열리고 있는 나대용 장군 추모제에 6년째 참석했다.

지난 1556년 7월 25일 나주에서 태어난 나대용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도와 손수 만든 거북선을 이용, 옥포해전, 한산대첩,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등 총 15회의 해전에 참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군은 나대용 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8번 째 잡수함을 '나대용함'으로 명명했다.

나대용함은 1천400t 규모로 40여명의 승조원들이 50여 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격변의 21세기 어떻게...'

화순군 혁신 강연회

화순군은 최근 정착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전 청와대 인사수석)를 초청, '격변의 21세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혁신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강연회는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 임직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대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고,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 스스로 자기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 동박굴재 희생자 합동위령제

나주 동박굴재 민간인 학살 56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지난 20일 봉황면 철천리 현지에서 유가족과 마을주민 등 성일 나주봉황유족회 회장 등의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완도읍~신지~고금면 버스노선 17일 개통

"이젠 버스 타고 물에 갑니다"

완도읍과 신지면~고금면 간을 잇는 정기 버스노선이 지난 17일 개통돼 버스와 배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했던 고금과 약산면 등 완도 동부권 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신지 대교 개통 이후 고금 삼정항~완도항간 노선은 경영난으로 운행이 중지됐다. 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버스회사에 운행비 일부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 신지~고금간 정기 노선을 신설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고흥 발전과 이장의 역할'

고흥군 이장 515명 교육

고흥군이 지난 18일 관내 이장 515명을 대상으로 '고흥 발전과 이장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박병종 군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나부터','지금부터','여기부터','할 수 있는 것부터','쉬운 것부터' 하자는 5계명을 정했다"며 "기본적인 일무를 수행하는 이장들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 "이장들은 행정과 군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32만 광산 구민 화합잔치 한마당 성료

제 16회 광산구민의 날 행사가 지난 20일 송산 근린공원에서 전 갑길 구청장과 1만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산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지방경찰악대의 연주와 패러글라이더 축하 비행, 각 동의 특색 있는 가장행렬순으로 이어졌다. <사진>

전갑길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광산구의 보다 나은 미래와 발전을 희망하는 32만 구민의 대화합 한 마당이자 그동안 이룬 성과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더욱 발전하는 내일의 광산구



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o@

전남대학교 MBA 신입생 모집

과정별 모집인원

학위과정	모집 분야	모집인원
전문석사학위 과정	주간반 (PAC MBA)	40명
	야간 및 주말반 (PAC EMBA)	60명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야간 및 주말반(PAC EMBA)의 경우 2년 이상의 재직 경력자.

진행일시 및 장소

- 진행일시 : 1) 필답고사 - 2007. 5. 5.(토) 오전 9시 30분
- 2) 면접고사 - 2007. 5. 5.(토) 오전 11시 30분
- 진행장소 : 경영전문대학원(경영대학 2호관), 현장 안내문 참조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2007. 4. 16(일) ~ 2007. 4. 27(금)
지원서는 별도의 교부절차 없이 본 대학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출력
- 접수 : 2007. 4. 16(일) ~ 2007. 4. 27(금), 오후 5시까지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경영대학 2호관, 1층 문의전화 062)530-1405

